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지연*

A study on the effect of regional economy of cultural city development industry

Ji-Yeon Choi*

요 약

문화는 도시경쟁력의 원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대사회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도시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문화산업과 결합하여 좀 더 지역적이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도시조성사업은 기반시설 건설·운영으로 인하여 생산, 고용, 그리고 소득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역사·문화재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민족 문화 정체성 및 가치를 향상시켜 국가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ulture is the essential requisite to improve the resource of city competitiveness and the quality of life. The modern society hope to make the city, more regional and able to be expressed creativity, combining with culture industries for the purpose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regeneration city. This development industry of cultural city constructed employment and the production of income due to the operations by infra-construction. And It inspired civic awareness about Cultural History. In addition, It presented the effective direction of national aspects caused by improving the identity and the value of ethnicity, culture.

키워드

cultural city development industry, cultural city, culture and tourism, culturally industry
문화도시조성사업, 문화도시, 문화관광, 문화산업

1. 서론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서 보전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진흥을 위한 가치를 가짐으로써 인근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불릴 만큼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도시경쟁력의 원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의 잠재력에 초점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2010년 매출액 규모는 약 59조원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4.2%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액 규모는 19억 달러로 연평균 1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이와 같이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가시화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발현된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은 광주광

* 전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matilda35@hanmail.net)

접수일자 : 2012. 01. 15

심사(수정)일자 : 2012. 03. 23

게재확정일자 : 2012. 04. 07

역시, 경주시 등 지방도시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지역은 저마다 문화도시임을 표방하면서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1].

그러나 그동안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문화도시의 조성방향, 유형별 추진전략, 장소마케팅,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공학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 방식으로 분화되어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대한 학문적 통합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지속적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재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공학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도시문화조성사업은 국가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도 매력, 느낌, 즐거움이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체류하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지역경제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개관

2.1 문화도시조성사업의 등장 배경

문화는 예술이나 심리적인 것이기 보다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집단의 특정한 생활방식을 가리키는 의미이며 문화는 삶의 총체적 상황으로서 어떤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도시는 집약적 환경체로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집단의 특정한 생활방식이 담겨거나 표출되는 장이다. 곧 도시에서의 문화란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온 각종 지식, 신앙, 관습, 예술, 법률 등 자연 상태와는 차별화된 목적지향적인 행위와 정신적 활동의 모든 산물이다.

그러므로 문화도시는 문화와 도시가 결합된 상태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문화의 복잡한 집적체이다.

이러한 문화도시에 대한 담론이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85년 유럽회의에서 당시 그리스의 문화부 장관이자 영화배우였던 멜리나 메리쿠스(Melina Mericus)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유럽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한 도시’를 중심으로 매년 문화도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85년부터 아테네를 필두로 문화도시를 지정하면서 문화도시는 공식적 담론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당시 유럽전반에 폭넓게 퍼져 있던 문화주의, 혹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대한 논리가 있다. 산업주의의 한계에 빠져 있던 유럽의 도시들은 척박한 삶의 질과 낙후된 도시 이미지에서 헤어날 방법을 모색했고 지역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적 차원에서 구 공장지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공장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도시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계획을 통해 유럽도시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3].

이처럼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도시의 재생이라는 흐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에는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도시의 미관과 경관을 복원함으로써 문화적인 도시로 태어나자는 도시정책의 방향이 담겨있다. 때문에 문화도시는 탈공업화된 사회의 발전전략이자 성장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산업적 욕망에서 도시 재생을 위해 문화도시를 제안했다면, 1991년 이루에서 열린 환경회담은 이념적 차원에서 문화도시를 확산시키고 세계화시키는데 기여한다. 회담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모든 개발에 앞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찾을 것을 명시하였고, 그 결과 산업은 환경을 기준으로 급속히 재편되기 시작한다. 이에 도시의 산업적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문화산업을 크게 각광받기 시작했다[4].

2.2 문화도시조성사업의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가장 안정한 도시, 문화·예술이 가득한 도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체류하고 싶은 도시 등의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도시를 도시경영 측면, 지역주민 측면, 외지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경영 측면에서의 문화도시란 일차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한 산업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이며 친화경적인 환경조성을 바탕으로 창의

성이 발현될 수 있는 도시, 결국에는 이러한 도시의 총체적 자원이 자연스럽게 관광자원화 되는 도시를 말한다. 그리고 문화도시에서의 문화는 단지 예술적 차원에서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술적 차원을 포함한 인간의 욕구 차원까지로 확대된 개념을 뜻한다. 즉, 문화도시는 예술성(심미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인 것이다. 문화도시에서 도시의 개념은 역시 특정장소로 브랜드화 되지만 공간의 운영에 대한 측면이 작용하며 기존의 문화의 거리, 문화벨트 등이 문화도시와 연관성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거리와 문화벨트는 문화자원 및 그것의 활용장소와 그 장소간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화도시는 동일공간에 있는 문화적 자원과 거주자 간의 운영을 강조한다. 즉, 문화의 거리와 문화벨트는 필연적으로 관광 상품화가 최종목적이 되지만 문화도시에서 관광은 부수적인 것이며, 거주민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욕구발현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다.

지역주민측면에서의 문화도시란 자기실현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 및 활동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도시는 매력적이고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또한 문화도시는 지역의 입장에서 바라본 쾌적하고 매력적이며 느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잘사는 도시로서의 문화도시를 바탕으로 누구나 머물고 싶고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이색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를 말한다. 따라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문화도시는 불특정 누구나가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도시로 설명가능하다[5].

외지인의 입장에서 문화도시란 도시경영의 방법, 도시설계의 방법, 미래커뮤니티 방법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 결국 국토개발 및 리모델링을 통해 국가 경영관리 시스템 개선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경관 및 문화적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3 문화도시조성사업의 필요성

문화도시 조성은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외에 문화적 분위기와 일상적 여가시설을 쫓는 고급인력들의 유입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국가를 대체하는 경제주체로서 도시가 부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도시기능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통해 도시와 거주민, 기업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는 모든 창조의 중심으로 재구성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거주지를 경제적 조건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는 보다 주변 환경이 쾌적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거주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기업들의 입지선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첨단산업회사들은 문화적이고 일상적인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여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주자들의 문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는 문화적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의 이동을 유인하게 하고, 그것은 기업들의 입지 선정에도 이어지게 됨으로서 자연스레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되는 것이다.

III. 문화도시조성사업의 국외현황

3.1 유럽문화수도 : 문화예술 지향형

유럽공동체의 주요 관심사인 통상·경제문제와는 별개로 문화와 그 관련분야도 일정한 정도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던 시점에 당시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멜리나 메리쿠스 장관은 유럽공동체 회원국내에서 유럽문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자는 제안을 내놓게 된다.

유럽문화수도는 유럽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함, 그리고 공통의 특징을 제모명하는 한편, 유럽인 상호간의 심층적인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내용으로, 문화수도는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 활동 및 예술 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 발전을 이루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국 및 타국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문화관광객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유럽도시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유럽의 문화 협력증진에 힘써야 하며, 지역예술가의 경력 및 재능 개발에 주력하여 창조성과 혁신성을 제고한다[6].

3.2 미국 샌디에고 마을계획 : 지역주민 지향형

샌디에고 시의회는 미래의 발전을 위한 지침이 될 전략적 틀을 채택해 왔고, Sandiago Assosiation of Government는 2000~2020년 사이에 인구가 284.000 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발전에 이용될 도시의 자연 그대로의 땅은 10%이하로 남게 된다고 보고,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게 된다[7].

모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고양에 최대 목표인 도시 계획은 13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가치는 열린 공간, 다양성, 공공시설, 주택, 보행성, 문화, 학교, 휴양, 경제, 분권주의, 이동성, 다양한 국가주의, 효율성 등이며, 이것은 모두 도시의 환경과 다양성, 도시만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3.3 일본의 가나자와 : 창조도시 지향형

지구화와 지방화의 시대에서, 뉴욕이나 동경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도시도 ‘세계도시’, ‘국제도시’를 스스로의 도시 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제조업의 쇠퇴, 청년실업의 증가, 재정위기에 직면한 복지 국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면서 산업과 문화의 고유전통위에서 과학과 예술 문화가 가진 창조적 힘을 살려 사회적 잠재력을 끌어내려는 도시의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나아가 도시의 총체적 요구를 인식한 인구45만의 휴먼스케일의 도시인 가나자와는 전통예능과 전통공예를 바탕으로 생활문화를 영위하며 풍부한 자연환경에 독자적인 경제기반을 갖춘 도시로 일본의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가나자와는 문화와 경제가 균형을 이룬 내발적 발전의 창조도시로서 국제적 모델이 되고 있다.

창조도시 가나자와는 창조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발전, 공생, 조화’를 기반으로 지구적으로 작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도시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8].

IV.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1. 광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1.1 현황

광주문화도시 조성사업 초기부터 산발적으로 표출되어 왔던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이 조직화되어 강하게 표출된 것은 문화전당 설계안에 대한 것이었다.

광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던 광주시는 문화전당콘텐츠 분야 등 각계 전문가 50명으로 시 자체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최종연구보고서를 2007년 1월 8일 발표했다. 문화관광부가 작성하는 법정종합계획에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후 지역 시민단체들도 광주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결집하고, 법정종합계획안 마련에 시민단체가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광주문화도시협의회’를 조직했다.

이렇게 특별법이 발효되고, 종합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표 1과 같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2007년에 마무리되었다.

표 1. 광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Table 1. The outline of Gwang-ju cultural city cultural city development industry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문화의 허브로 조성, 지역의 균형적 발전 및 국가의 문화적 위상 강화 •교류, 창조, 연구, 교육의 순환적인 도시 자생 모델 구축 	
사업기간	2004~2023년	
주요사업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운영	부지 118,170㎡(35,746평), 연면적 142,719㎡(43,172평), 총사업비 7,174억 원
	7대 문화지구 조성	핵심문화지구 아시아문화지구 시각미디어지구 인권교육문화지구 아시아전승문화지구 아시아신과학지구 문화경관 및 생태환경보전지구
	문화중심 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도시의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 문화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관리 등
	도시문화 활성화	문화콘텐츠개발, 문화교류 활성화 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어 국가가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문화프로젝트이다. 광주광역시는 아시아 문화 교류도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 아시아 예술평화도시를 꿈꾸며 아시아 문화발전소로서 국가 수준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남대 등 지역대학에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문화전문 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7개 문화지구는 광주광역시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혁신시킬 것이며, 이의 경제적 창출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1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역사로서 광주광역시와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원활하고도 조화로운 지원이 필요하다[9].

4.1.2 지역경제파급효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표 2와 같이 32조344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만 6349명의 고용창출과 1조 2001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운영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Table 2. Economic ripple effect of building and governing a national Asia cultural convention

구분	생산(억)	고용(명)	소득(억)
문화전당 건립	14067.89	6783	3450.40
문화전당 운영	18506.44	28484	8187.59
민주평화 교류원	1760.02	2566	802.11
아시아문화(정보)원	3743.42	5457	1706.02
문화창조원	7155.14	10431	3260.87
아시아예술극장	2759.21	6374	1155.97
어린이지식문화원	1411.40	2057	643.23
전시자료 구입 등	1677.26	1599	619.39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356.39	342	132.35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운영	507.70	740	231.38
총계	323440.42	36349	12001.72
투입비용 대비 효과	173%	188%	62%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전당 건립에서 약 1조 406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6783명의 고용창출과 3450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나타내었고, 문화전당 운영은 민주평화 교류원, 아시아 문화원, 문화창조원, 아시아 예술극장, 어린이지식문화원, 전시자료구입분야, 문화

콘텐츠기획개발분야, 아시아문화개발원설립·운영분야에서 약 1조850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만 8484명의 고용창출과 8187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투입비용 대비 생산부분 173%, 고용부분 188%, 소득부분 62%의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Table 3. Economic ripple effect of furtherance a cultural urban environment

구분	생산(억)	고용(명)	소득(억)
7대문화권 조성	200672	23939	970474
문화전당권	652296	3145	150087
아시아문화교류권	458123	2209	112363
아시아신과학권	202490	1931	74777
아시아전승문화권	284310	4145	12571
문화경관·생태 환경보존권	206463	3010	94093
교육문화권	370909	4614	24074
시각미디어문화권	335080	4885	152709
문화도시 기반 조성	104277	5059	257354
총계	355949	28998	1227828
투입비용 대비 효과	237%	193%	82%

또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3조 558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만 8998명의 고용창출과 1조 2278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있어 7대문화권인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부분에서 2조 509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만3939명의 고용창출과 9704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창출하였고,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있어 1조 4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5059명의 고용창출과 2573억 5400만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창출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투입비용 대비 생산부분 237%, 고용부분 193%, 소득부분 82%의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종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표 4와 같이 8.08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 1419명의 고용창출효과와 3.701억 원에 소득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인적자원 개발·확충, 시민주

체의 문화도시 조성, 국제문화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 마케팅 부분 중에서 국제문화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부분이 문화교류 역량 강화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투입비용 대비 생산부분 165%, 고용부분 234%, 소득부분 76%의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표 4. 문화교류 도시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Table 4. Economic ripple effect of cultural exchange city of strengthening capabilities

구분	생산(억)	고용(명)	소득(억)
인적자원 개발·확충	837.45	1042	557.62
시민주체의 문화도시 조성	913.85	1332	416.48
국제문화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578.51	8351	2610.70
홍보 마케팅	603.27	694	117.05
총계	8083.00	11,419	3701.85
투입비용 대비 효과	165%	234%	76%

4.2.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2.1 현황

경주는 다수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중문화 시설이나 공연시설의 수가 적으며, 전시시설은 박물관 외에는 수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표 5를 보면 문화회관은 서라벌문화회관과 안강 문화회관 등 2개소가 있으며, 주로 공연,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을 제외하면 그 수가 미비하여 역사적 문화유산의 도시 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헌자료가 시민들에게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물관의 경우에도 대학박물관을 제외하면 그 수가 적고, 국립경주박물관 외에는 규모나 시설, 운영 면에서 열악하다. 또한,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시설과 무형 문화재 전시회관이 없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아직까지 건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기타 문화기반시설은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국제회의장, 문화 복지 시설 등

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보문 야외공연장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상설국악공연을 운영하고 있다[11].

한편, 경주시에는 경주시립예술단, 경주문화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주시 지부 산하 7개 단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있고, 경주시 문화예술단체의 특징 중에는 전통문화 관련 단체와 학술적 성격의 단체가 많고, 개별단체의 활동이 지역에 비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2.2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파급효과

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의 국가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한 수많은 매장문화재 및 유적 발굴사업과, 그에 따른 연구 활동 진작으로써 민족의 문화적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발굴 및 복원사업을 통한 경주가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확산으로 역사의식 고취와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12].

둘째, 민족 전통문화 요소의 발굴과 복원을 통한 지적 재산권의 확보와 한국문화의 뿌리가 되는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세계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실�크로드의 동단 거점지역으로서의 경주의 가치를 가지적으로 구현하여 세계적 고분밀집 지역인 경주 전역을 역사유적 공원화하고, 2천년 역사도시로서 경관을 보존하고 도시 전체의 역사성을 계고하여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과 정비를 통한 도시 인지도를 고양시킬 수 있다.

또한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적 측면으로서 그동안 경관 보존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발 제한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통한 매입으로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재건으로 인하여 불거리 확충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문화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서 보전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진흥을 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표 5. 경주시 소재 주요 문화시설 및 공간
Table 5. The position of cultural institutions and space in Gyung-ju

명 칭		개 요
문화회관	서라벌문화회관	574객석 대강당, 소강당, 전시시설로 공연, 전시, 교육
	안강문화회관	700객석 대강당, 전시실, 소회의실로 공연, 전시, 교육
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500열람석 도서자료 107,007권 13명의 직원고용
	경주시립중앙분관	200열람석 도서자료 25,330권 3명의 직원고용
	감포읍민도서관	60열람석 도서자료 39,907권 2명의 직원고용
	안강읍민도서관	354열람석 도서자료 107,007권 13명의 직원고용
	건천읍민도서관	132열람석 도서자료 25,394권 2명의 직원고용
	경북도립외동공공도서관	300열람석 도서자료 55,602권 4명의 직원고용
공연장	예술공간	150객석 조명, 부대, 음향, 분장실시설로 연 3회 공연
	보문 야외공연장	1,500객석(스탠드식) 보문탑, 공연무대, 공연마당, 스탠드, 조명탑, 음향조명실, 대형멀티비전 등의 시설로 4~11월 운영 - 공연단체: 신라국악예술단 - 공연종목: 화무, 산조춤, 사물놀이 23종목
미술관	아트선재미술관	3개 전시실, 강당의 시설로 평시 약 50점의 작품 전시 및 운영
	경주갤러리꽃피	전시장, 작업장, 음식점등의 시설로 개인갤러리 1개월 단위 전시교체 무료대관으로 작품 전시 및 운영
박물관 (대학 제외)	국립경주박물관	도서자료 36,388권 전시
	신라역사과학관	6개 전시실 및 부대시설 사립전시관으로 석굴암 모형 및 건축 과정을 중심으로 전시
	한국광고영상박물관	3층 규모 경주대 부설 영상관, 전시관, 음식점의 전시문화시설
	동리목월문화관	직원 3인, 2층 규모로 월 3,500명의 관람객 수용
국제회의장	육부촌	850객석 회랑, 로비, 소회의실, 음향실 등으로 5개 국어 동시통역시설 구비되어 국제회의 및 행사장으로 활용
영화관	대왕극장	304객석
	명보극장	114객석
	신라극장	182객석
	아카데미극장	170객석
	경주시네마	221객석
문화복지시설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150객석으로 강당, 전통예절실, 양계실, 전시 및 휴게실, 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여성들의 기술, 취미, 교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

표 6.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파급효과
Table 6. Ripple effect of Gyeongju cultural city development industry

	파급효과
국가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문화 정체성 및 가치고양 • 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한국문화원형콘텐츠 확보 • 세계적 역사도시로서의 가치 및 인지도 고양
지역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된 주민불만의 해소 • 신규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주민의 자발적 문화재 보호의식 확산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일시적, 금전적 보상이라는 미봉적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의식이 확산되어 질 것이다[13].

V. 결 론

21세기 문화시대는 삶의 목적이 양적 만족으로부터 질적 만족으로 변화하였다. 문화예술은 문화시대에 접하여 기존의 정치·경제의 부수적 영역에서 선도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한 현시점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도시만이 삶의 질적 만족도를 충족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14].

따라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반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매우 큰 비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급 시설은 문화적 효과성은 물론이고, 수준 높은 대형 공연장의 건설·운영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생산과 고용, 그리고 소득의 인프라 구축이 지역시민으로부터 절대적인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경제측면을 떠나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문화재 보호의식을 고취한다면 누적된 주민불만이 해소되고 또한 신규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세계적 역사도시로서의 가치와 인지도를 향상

시키면서 문화산업강국을 실현시켜 문화 정체성 및 가치를 향상시킨다면 국가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영향 방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연구되었으므로 앞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더욱 객관화 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 [1] 이병훈,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4-7, 2009.
- [2] 고평채, "전주한옥마을 보전정비사업에 따른 주거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8, 2011.
- [3] 신민경, "문화도시 조성을 둘러싼 참여주체들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1-15, 2005.
- [4] 원영수, 김동현, "부동산신탁회사 운용상 개선방안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3권, 1호, pp. 52-53, 2009.
- [5] 김형근, 김부성, 임동진, 김동현,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6호, pp. 930-933, 2011.
- [6] 도난주, "전통한옥지역의 도시 이미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북촌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5-25, 2003.
- [7] 이귀택, 민규식,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유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5호, pp. 739-742, 2011.
- [8] 황교선, "문화예술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정책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69-74, 2008.
- [9] 고은미, "광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62-67, 2011.
- [10] 김기곤, "문화도시의 구성과 공간정치 연구 : 광주, 전주, 부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82-90, 2008.
- [11] 경주시, 『2020 경주시 장기종합발전 계획 구상도』, pp. 357-358, 2011.
- [12] 김도영, "도심활성화에서 신예술가집단의 역할: 전주한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55-71, 2010.
- [1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기본계획』, pp.31-41, pp. 424-425, 2004.

- [14] 원도연,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전략에 관한 연구:경주·춘천·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28-154, 2001.

저자 소개



최지연(Ji-Yeon Choi)

2004년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학사)

2008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 졸업(석사)

2010년 전주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2010년 전북과학대학 시간강사

2010년~현재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부동산투자/관리